

보도자료

2010년 6월 5일(토)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오상진 과장(☎750-2770)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박승철 사무관(☎750-2735) psc2285@kcc.go.kr**인터넷 세상의 보이(걸)스카우트, 한국인터넷드림단 발족****- 16개 시·도에서 800여명 단원선발, 차세대 리더로 집중 육성 -**

방송통신위원회(KCC, 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6월 5일(토요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홀에서 청소년, 학부모 및 내외 귀빈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터넷 세상을 선도할 「한국인터넷드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정병국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희정 원장 등 내외 귀빈들과 16개 시·도별 단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으며, 홍보대사 위촉 및 명예단원 임명, 단원선서 및 단기 수여 등의 공식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및 기념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24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초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방과후 활동으로 추진된 ‘함께@넷스쿨’을 확대하여 범국민적인 인터넷윤리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한국인터넷드림단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시민으로서의 기초소양을 배양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터넷을 보다 건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드림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자기개발, 사회참여, 창의·도전, 미디어선도, 국제교류 등으로 구분되는 드림단 주요활동은 발대식 이후 주요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 활동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인터넷드림단을 구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 2월부터 인터넷 관련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창설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단원모집과 주요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약 800여명의 단원을 모집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인터넷드림단 창설과 주요활동 전개에 대해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미션과 현장을 공유하여 드림단 단원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드림단 단원들에게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 크기라고 하며, 인터넷 세상을 창조와 발전을 위한 꿈의 터전으로 가꾸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기념사에서 "한국인터넷드림단 단원 한사람 한사람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 인터넷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식전행사로 인터넷윤리관, 인터넷보호관, e콜센터118관, 인터넷미래관등의 홍보부스가 마련되며 정보보안 퀴즈행사, pe.kr 도메인 무료 증정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빼꼼과 사진찍기 등의 이벤트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참여공간을 제공하였다.

홍보대사로는 개그맨 「왕비호」 윤희빈, 「해운대」 윤제균 감독, 영화 배우 정준호씨가 위촉되었으며, 명예드림단원으로 「지붕뚫고 하이킥」 서신애, 기타신동 정성화, 빼꼼(한국인터넷진흥원 마스코트-북극곰 캐릭터)이 위촉되었다.

본행사 후에는 혼성그룹 egg의 공연과 기타신동 정성화의 기타시범, 함현진 마술협회장의 마술공연 등 색다른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발대식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선플 달기국민운동본부,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T문화재단,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정보통신 산업협회, 공신닷컴, 경제투데이, 디지털데일리, 부산여성뉴스, 보안뉴스, 아이티투데이, 네트워크타임즈,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등이 후원하고, EBS, YTN, 중앙일보, 중부일보, 강원도민일보, 중도일보, 남도일보, 전북도민일보, NHN, Daum, SK컴즈, Yahoo코리아, KTH, 하나로드림 등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끝.

< 참고 1 >

한국인터넷드림단 창설 발기인

번호	구분	기 관 명	참 여 자	비고
1	정부/ 산하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2		청와대 IT특보	오해석 특 보	
3		청와대 비서실	김철균 비서관	
4		대한민국 국회	남경필 의 원	
5		한국인터넷진흥원	김희정 원 장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 장	
7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	
8	교육계	한국대학총장협회	오 명 회 장	
9		서울여자대학교	이광자 총 장	
10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 장	
11		전국학교운영총위원연합회	송인정 회 장	
12	언론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길종섭 대 표	
13		한국온라인신문협회	김기정 회 장	
14		EBS	곽덕훈 사 장	
15		국민일보	조민제 대 표	
16		중앙일보	송필호 사 장	
17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 장	
18		경남일보	이연근 대 표	
19		남도일보	유준상 대 표	
20		대구일보	한국선 사 장	
21		중도일보	김원식 대 표	
22		중부일보	임재율 대 표	
23	플랫폼 사업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김창희 정책위원장	
24		다음	최세훈 대 표	
25		Yahoo Korea	김대선 대 표	
26		SK커뮤니케이션즈	주형철 대 표	
27		NHN	김상헌 대 표	
28		KTH	서정수 대 표	
29	하나로드림	신중철 대 표		
30	민간/ 협회/ 단체	하나은행	김정태 은행장	
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32		KT문화재단	박부권 이사장	
33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박찬모 대표회장	
34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정태명 회 장	
35		선플달기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36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	
37		공신닷컴	강성태 대 표	

< 참고 2 >

한국인터넷드림단 미션 및 현장 등

□ 미션



□ 드림단 현장, 선서 및 덕목

○ 드림단 현장

- 인터넷은 우리 삶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창출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주의적 공간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 정책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 스스로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인터넷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 우리는 청소년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신뢰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가칭)한국인터넷드림단은 청소년이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도덕성과 사회의식을 배양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현장과 선서 및 덕목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드림단 선서

<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

- 리터러시에 대한 의무(인터넷의 이용,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이용에 대한 의무)
 - 나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유익한 정보만을 이용하여 정직하고 신뢰 받는 인터넷 사회 구현에 힘쓴다.
- 자기주도적인 의무(인터넷콘텐츠의 탐색과 생산에 탁월성 추구)
 - 나는 인터넷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도전적 정신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끊임없이 나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
- 사회에 대한 의무(인터넷과 관련기술을 보호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인터넷 콘텐츠의 추구 및 생산을 위해 여러 집단에 참여)
 - 나는 인터넷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과 세계 문화 교류에 힘쓴다.

○ 드림단 7대 덕목

- 드림단은 창의적이다.
- 드림단은 개방적이다.
- 드림단은 포용적이다.
- 드림단은 나눔을 실천한다.
- 드림단은 인터넷을 스스로 지키고 가꾼다.
- 드림단은 윤리적이다.
- 드림단은 법을 준수한다.